

사설

댐건설이 능사 아니다

지리산 댐 건설 반대운동이 점차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지리산 권의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남원시 의회의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리산 댐 백지화 국민행동 등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운동이 정부의 무분별한 댐 건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힘들에 의해 100만인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지리산 댐 백지화를 위한 지리산 문화제 등이 기획되고 있어, 이제 정부가 지리산 댐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전 국민적인 저항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버리고, 새로운 물을 찾아 새로운 오염과 파괴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그치고,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고 장기적인 조립정책을 통해 물을 오래 잡아두고 쓰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물이 오염된 채로 방치되고, 또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가? 그런 물을 살리는 정책, 노후된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새는 물을 거두는 정책, 이런 정책이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리산 댐 건설을 결행한다면 결국 환경과 문화 파괴와 종속하고도 안이한 행정의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오점을 남길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저항에는 그 뚜렷한 한라가 있다. 물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절감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댐 건설이 그 대안은 아니다. 본란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결집하면 댐 건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안이한 발상에 다를 아닌 것이다. 가능하면 자연 환경과 문화 유산을 파괴하지 않고 물부족을 해소하려는 장기적이고도 사려깊은 정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 환경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물 부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조립 정책을 더 넓히는 길 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염된 물은 그냥 포기해

한 번 결정된 일을 좀체로 철회하려 하지 않는 정치 권력의 속성으로 보아 이러한 무분별한 파괴를 막을 책임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일찍부터 환경지킴이, 산지킴이 역할에 나서왔던 불교계가 이러한 일에 중심을 나서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지리산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에 교계의 힘을 모으고, 전국 사찰조직 등을 통해 불자들의 뜻을 모아,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를 온 국민에게 회향하는 큰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직지' 사랑

청주시민회와 직지찾기 시민운동본부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쌍령산 일대에서 절터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발견했으며, 이 터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포함한 고려 말의 고승 백운선사가 창간한 상운암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기간으로는 정확한 목판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만큼 향후 정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의가 적지 않다. 청주시민들은 1997년부터 직지찾기 운동본부에 발족시켜 삼금까지 내걸며 대대적으로 직지를 찾아왔다. 청주시도 이에 호응해 전담반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고려 우왕3년 1377년에 세상에 나왔다. 어언 623년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독일 구텐베르크의 '세계의 심판'보다 63년이 앞선 이 책을 우리나라가 단 한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설부른 판단도 금물이겠지만 애써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예단하는 것도 우리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학계와 운동본부 모두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밝혀 나가는데 주력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백운선사의 주석체인 상운암이 밝혀지고 나아가 선사의 행적이 밝혀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우리 곁에서 흔히 빛을 발하며 나타나기를 발원할 뿐이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 하권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한편 현재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직지 영인본을 제작배부해 전국민의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 강좌를 개설하는 등 계속 직지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류사상 인쇄술을 최초로 창안한 우리 민족의 공자에 부합되게끔 직지의 출현이 운동본부와 우리의 성의를 보아서라도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며, 우리 문화재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거듭해 기대한다.

아무튼 이번 절터발견은 그 진실 여부에 앞서 운동본부와 청주시민들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군승단에서 군불교위원회로의 조직 전환

군승단은 군에 파견된 군종장교라는 신분으로 인해 종책을 국방부를 비롯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군불교위원회로 조직을 전환, 군 포교의 원리와 경험이 있는 비구가 종단을 대표하는 포교원장의 임명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군포교 사업을 관장한다.

지휘체계 확립 및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구축

군불교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실 선임법사를 주축으로 3군에 대한 군승 및 사업에 대한 통솔과 협조체계를 명확히 한다. 특히 군승 인사와 관련, 위원장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통한 인사고과제 등 상벌권도 명확히 수립한다.

군법당과 군 신도의 종단 정체성 강화

현재 군승은 조계종 승려신분으로 군에 파견되어 군법당의 주지를 맡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거쳐 군법당을 종단에 명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법당 신도에 대한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관리 지원

현재 포교사단 군포교팀, 군불교진흥회 등 군포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또는 후원하는 단체가 많으나 군승단(종단)과의 정확한 연계와 관리가 없어 군포교사업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우므로 군포교 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및 협의, 지원을 해 나간다.

'군불교위원회' 놓고 이견

군승단



군불교위원회 결성은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는 군불교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97년 11월6일 호국 원광사에서 열린 군승회의 모습.

문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관리 당연"

군승단이 조계종에서 국방부로 파견된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승단이 조계종에서 국방부로 파견된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군포교 제반 업무를 수행할 군불교위원회는 포교원 산하 군포교 전담 기구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원장은 군포교의 원력과 경험이 있는 비구승 중에서 군불교위원회의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임

명하고 부위원장도 군승회의를 거쳐 현역 군승 중에서 포교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교원은 군승 인사조정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불교위원장(당연직 외장), 포교원 포교국장 및 종령급 이상으로 종정계를 받지 아니한 현역군승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역군승에 대한 보직, 장기복무, 진급, 상벌 및 기타 신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의,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불교위원장의 상신에 따라 포교원장이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게 하고 군법당 신도들에게 종단 신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군포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포교 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및 협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범종단 기구로"

군승단은 비록 조계종 승려이지만 그동안 한국불교를 대표해서 활동해 왔고 군포교가 범종단적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포교원 산하 기구로 묶어두려는 조계종의 입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군불교위원회 결성도 범종단적인 불을 만들어 타종단의 후원을 유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군승 인력 문제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사와 관련해서는 군승이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인사문제에 있어 당연히 국방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 종단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종단이 군승의 인사문제를 개입할 경우 군승단의 독자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승단이 이번 초안에 대해 가장 거부감을 표시하는 부분은 지원문제다. 이번 안은 군승에 대한 포상 및 징계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군승단은 제도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opia.com)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불교방송에 또 한번의 돌풍이 예상된다. 7월 27일 열린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총괄국장에 전 불교방송 상무였던 송병욱씨를 추천했기 때문이다. 송병욱씨는 불교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이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교방송 공금횡령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장본인이다. 물론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불자들의 정성으로 이뤄진 삼보정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회사를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산불교방송 운영위는 송병욱씨를 총괄

목탁 소리 천 미 회 <부신주재 기자>

부산BBS 시끄럽다

국장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부산불교방송 노조는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공금횡령 의혹을 샐던 송병욱씨를 총괄국장에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굳이 노조측의 주장이 아니라

라도 이번 운영위의 송병욱씨 추천은 납득하기 어렵다. 송병욱씨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리됐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체를 통해 접수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송병욱씨로 결정했다는 운영위의 주장은 더더욱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물론 추천 절차상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신뢰 받는 불교방송으로 거듭나는 일에 임의를 담당해야

하는 주요 요직인 총괄국장 자리에 공금횡령의 의혹을 샐던 신선하지 못한 인물을 추천한 운영위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운영위원 추천과정에서 여러 번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산불교방송이 오명을 씻고 안정화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송병욱씨 추천은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운영위는 교계의 여론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맑고 참신하며 소신있게 일할 새로운 인사 물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본사 사장은 이번 추천으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mhcheon@buddhopia.com)

갈월사 영탑(靈塔)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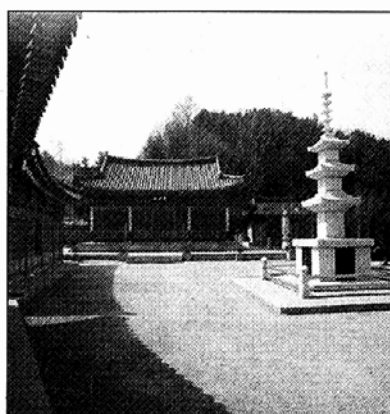
돌이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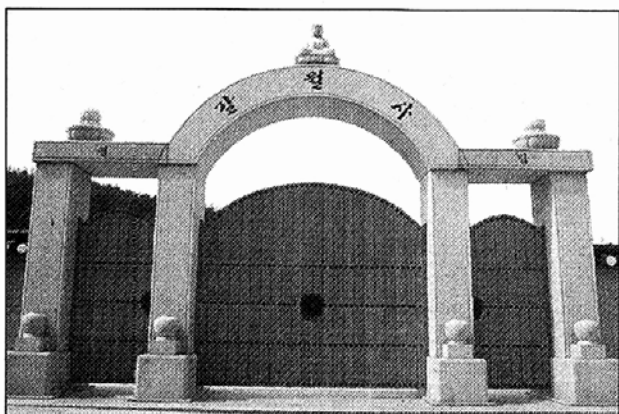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공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들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들일만한 고품질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많은 영구히 사용 가능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